

트럼프 방중 앞 미·이란 협상 급물살... '종전 MOU' 모색

우라늄 농축 유예·제재 완화 등
1쪽 MOU...합의 '속도전' 양상
방중 전 합의 가능성 일각서 거론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논의 중이라고 공식 확인하면서 교착 상태에 빠졌던 종전 협상이 급물살을 타는 듯한 모습이다.

양측 모두 전쟁 종료를 선언할 수 있는 '정치적 출구'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다음 주 방중 이전에도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언급되는 상황이다.

6일(현지시간) 약시오스와 PBS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은 전쟁 종식과 핵 협상의 기본 원칙을 담은 1쪽 분량의 양해각서 체결을 논의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MOU는 14개 항목으로 이뤄졌다.

큰 틀에서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 유예(모라토리엄), 미국의 대이란 제재 완화 및 동결 자금 해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제한 완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MOU 체결로 전쟁 종식과 합의의 큰 방향성을 우선 제시한 뒤 30일간의 세부 협상을 통해 방안을 구체화하는 방식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핵 프로그램 제한과 관련한 기본 틀도 어느 정도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우라늄 농축 유예(모라토리엄) 기간과 관련하여서는 12년에서 15년 정도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미국은 20년을 요구했고 이란은 5년으로 응수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은 핵무기를 가져선 안 되고, 가지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도 다른 여러 사항과 함께 이 점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미국 공영매체 P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아마도 미국으로 반출하는 내용이 합의의 일부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아마도가 아니다"라며 "그것은 미국으로 보내게 된다"고 말했다.

이란 측은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고 있지만 전보다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해군사령부는 성명에서 "침략자의 위협이 무력화되고, 새로운 협약이 준비됨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안전하고 안정적인 통항이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ISNA 통신 인터뷰에서 "이란은 미국의 계획과 제안을 여전히 검토 중이며, 이란의 입장을 종합한 후 파키스탄 측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해각서는 최종 합의보다 합의 수준이 낮다. 또한 이후 세부 협상 기간인 30일 사이에 미국과 이란이 다시 극심한 입장차에 따라 대치 국면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도 합의 가능성이 크더라도 "이전에도 그들과(협상할 때) 그런 느낌이 들었던 적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봐야 한다"며 이란을 재차 압박했다.

이번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을 앞두고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더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4-15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할 예정인데, 미 P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방문 전에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했다. /연합뉴스



6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BTS 월드 투어 '아리랑' 콘서트 시리즈를 앞두고, 한국 K팝 보이그룹 BTS의 뷁가 멕시코 대통령 클라우디아 세인바움과 다른 멤버들과 함께 국립궁전 발코니에서 연설하고 있다. /REUTERS=연합뉴스

멕시코 대통령궁에 모인 BTS...환호성과 울음 터진 소칼로 광장

6일 오후 5시6분께(현지시간) 방탄소년단(BTS)이 멕시코 대통령궁 테라스 앞으로 모습을 드러내자 궁 앞 소칼로광장에 모인 5만여명의 '아미'(BTS 팬덤)들은 일제히 환호했다. 거대한 광장은 순식간에 이들이 뿜어내는 폭발적인 에너지로 들끓었다. 그리고 BTS가 상냥한 멘트와 제스처로 현장에 있는 팬들의 마음을 뚫어주는 데는 채 5분이 걸리지 않았다.

제이홉이 가변계 춤사위를 추며 등장하고 지민, 진, RM, 뷁, 정국, 슈가 등 다른 멤버들도 클라우디아 세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함께 발코

니에 섰다. 검은색과 연한 흰색 등의 정장을 갖춰 입은 BTS 멤버들은 팬들의 환호에 일일이 손을 흔들며 화답했다. 핸드폰을 꺼내 팬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하거나 사진으로 찍기도 했다.

리더 RM은 스페인어로 "만나서 반갑고, 초대 해주셔서 무척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영어로 "우리는 내일 있을 공연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내일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자"면서 환성을 끌어냈다. 마지막으로 친근한 스페인어 반말로

"너희를 사랑해, 그리고 좋아해"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BTS는 7일과 9-10일, 사흘간 멕시코시티 에스타디오 GNP 세구로스에서 콘서트를 진행한다. 3회 모두 순식간에 전석 매진됐다.

세인바움 대통령은 BTS 멤버들이 팬들을 향해 이야기하자, 손뼉을 치며 응원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그가 연단에서 뷁의 말에 화답하듯 "제가 이미 내년에도 꼭 다시 와야 한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하자, 팬들의 환호성은 절정으로 치달았다. /연합뉴스

'일본판 CIA' 日국가정보국 여론 700명 규모 출범

일본 정부가 '일본판 중앙정보국(CIA)'으로 불리는 국가정보국을 울어름 약 700명 규모로 출범할 계획이다.

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국가정보국 신설 법안이 지난달 중의원(하원)을 통과한 데다 참의원(상원) 심의도 8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어서 이 법안에 기반한 국가정보국을 신속히 설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르면 7월에 출범될 것이라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우선은 현재 총리 직속 정보기관인 내각정보

조사실과 동등한 700명 수준으로 출범하고서 추가로 인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턴 전문 경력직 등 채용 시험을 실시해 해외 기관과 정보 교환, 해외 정보 분석, 인터넷의 허위·오류 정보 대응 등에 필요한 어학 능력과 기술력을 갖춘 인재를 뽑을 방침이다.

국가정보국은 총리를 의장으로 각료들이 참여하는 국가정보회의의 산하에 설치될 조직으로, 앞으로 일본 정부의 정보 수집·분석(인텔리전스) 활동에서 사령탑 기능을 맡게 된다. /연합뉴스

인니서 시외버스·탱크로리 정면충돌...16명 사망

사망자 차량서 화상...부상자 4명 이송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에 있는 고속도로에서 시외버스가 기름을 실은 탱크로리를 정면으로 들이받은 뒤 큰불이 나 16명이 숨졌다.

7일(현지시간) AP 통신과 인도네시아 매체 콤포스닷컴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2시39분께 인도네시아 남수마트라주 북무시라와스군에 있는 트랜스수마트라 고속도로에서 시외버스가 반대 방향에서 오던 탱크로리와 정면 충돌했다. 이 사고로 시외버스 운전기사와 승객 등 16명

이 차 안에서 심한 화상을 입은 채 숨졌고, 다른 승객 등 4명도 다쳤다.

사망자 중에는 탱크로리 운전기사와 탑승자도 포함됐으며 부상자 중 3명은 심각한 화상을 입고 인근 보건소로 이송됐다.

목적자들은 시외버스가 사고 직전 불꽃을 뿜었다며 반대편에서 경유를 실은 탱크로리가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어 충돌을 피할 시간이 거의 없었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 구조 당국 관계자는 현지 매체 자카르타포스트에 초기 조사 결과 시외버스의 타이어 한개가 터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그는 버스가 제어력을 잃었고 충돌 후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국가수색구조청이 공개한 사고 후 영상과 사진에는 차량에서 검은 연기와 불길 이 동시에 치솟는 가운데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는 모습이 담겼다.

구조 당국은 사망자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시신 16구를 팔렘방에 있는 종합병원으로 옮겼다.

인도네시아 경찰 관계자는 콤포스닷컴에 "모든 피해자가 심각한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신원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운전기사 부주의나 도로 관리 부실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다. /연합뉴스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철거 전문가
광주·전남 전지역 가능

- ✓ 철거 경력 20년!
- ✓ 광주·전남 전 지역 출장 가능
- ✓ 상가, 주택, 간판, 내부 철거 등
- ✓ 당일 견적 OK / 소규모 철거도 가능
- ✓ 안전·정리+깔끔함까지 책임집니다.

현주 제로레벨 ☎ 상담전화 010.9842.5570